

고등학교 화법 과목의 문제점

— 6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한 9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

尹石山*

목 차

1. 현행 화법 교육의 문제점
2. 담화의 발생 시스템(system)
3. 화계의 구성과 표현
4. 담화의 場
5. 맺는 말

1. 현행 화법 교육의 문제점

인간의 意思疏通 활동은 90% 이상이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종래 교육과정에서 의사 소통은 話題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고, 담화 예절만 익히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것은 국어과에서 여타 교육과정은 마련했으면서도 담화 기능을 기르기 위한 話法 영역만은 교사들의 임의에 맡겨 온 점으로 미루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화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교과서를 편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새로 편찬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담화 교육 목표를 <자아의 실현>보다 <예절> 쪽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 제주대 교수.

물론 청소년기의 예절 교육은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담화 행위가 자아와 타인 관계에서 발생하고 또 연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예절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담화가 자아의 존재성을 표현하고, 생존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그에 대한 교육 목표는 예의를 잃지 않되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9권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¹⁾ 저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담화를 발생시키는 <시스템(system)>과 <구조 및 운용 원리>에 입각하여 설명하지 않고, 일반 상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모델은 크게 <원리→실제>로 진행되는 演繹의 유형과 <실제→원리>로 진행되는 歸納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이론 중심의 교과와 고학년에, 후자는 실제 중심의 교과와 저학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처음 화법교육을 시작하는 고등학교에서 담화 원리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훈련 쪽에 중점을 둔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담화는 <話者-話題-聽者>의 상호 역동적 관계에서 탄생된다.²⁾ 그로 인해 어느 한 단위만 바뀌어도 그 담화의 의미적 국면은 물론 조직적 국면의 최하위 층위(層位)까지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담화는 기본 원리는 단순하되 실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로 인해 원리를 교육하지 않고 실제만 가르칠 경우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형을 다 예측할 수 없어 쓸모 없는 교육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원리→실제>의 모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화자와 청자가 만나는 <담화의 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담화는 <같은 화자와 청자>가 <같은 화제>로 진행해도 <상황(situation)>이 달라지면 구조와 표현이 달라진다.³⁾ 인간의 행위는 상황에서 독립하여 이뤄질 수 없기 때문

1) 검토 대상으로 삼은 『화법』 교과서의 저자와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①김중택, 동아서적 ②차배근, 지학사 ③이중구, 세기 문화사, ④심재기, 조항법 공저, 대한교과서, ⑤조규일, 홍성암, 조상기, 박영순 공저, 천재교육 ⑥이주행, 윤희원, 이충우, 김현중, 박경현 공저, 금성교과서 ⑦박갑수, 김광해, 박호영 공저, 한샘출판사, ⑧전영우, 이인섭, 홍신선, 김영인 공저, 교학사 ⑨임흥빈 서정목 공저, 동아 출판사

2) R. Jakobson, *Linguistic and Poetics*, 김태욱 역, 『言語科學이란 무엇인가』(문학과지성사, 1977), pp.148~149.

이다. 그러므로 화법 지도에서 상황은 화자·청자·화제 이상으로 빠뜨릴 수 없는 단위 가운데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로, 담화의 구조와 조직을 孤立的으로 논의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모든 담화는 <意味的 국면>, <構造的 국면>, <組織的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상위 국면은 하위 국면을 지배하고, 하위 국면은 상위 국면을 밀반침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 편찬된 교과서들은 각 국면에 참여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들 끼리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밝히지 못한 채 並列的으로만 논의하여 단순한 지식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다섯째로, 국어과의 다른 과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문자 언어와 음성언어의 차이」라던가 「화제의 배열 순서」 같은 단위만 해도 그렇다. 이들은 「국어」를 비롯하여, 「작문」, 「문법」, 「문학」 교과서에서도 다루는 단위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일반 이론 교육은 상당한 논리체계를 갖춘 先發 과목으로 넘기고, 「화법」은 일상적 담화에서 고려할 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 마련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담화(discourse) 이론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법 지도에서 빠뜨려서 안 될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새로 교육 과정을 개편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담화의 발생 시스템(system)

일반적으로 담화의 주체는 <화자(speaker)>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화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화제(message)>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청자(hearer)>는 잠자코 듣는 상태로 생각해 왔다.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담화의 주체는 그 담화의 유형과 화자와 청자가 누구냐, 그들이 그와 같은 담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담화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

3) 필자, 『현대시학』(새미, 1996), pp.146~148 참조

에 개입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一方的 담화>와 <雙方的 담화>로 나눌 있다. 전자는 화자 혼자 이야기하고 청자는 듣는 유형으로서, 講演이나 雄辯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그리고 후자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유형으로서, 對談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와 같은 유형은 다시 화자와 청자의 對面 여부에 따라 <直接的 담화>와 - <間接的 담화>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전통적인 담화를 말하며, 후자는 매체를 통한 담화를 말한다. 하지만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거는 電話나 畫像會議같은 양식이 탄생됨에 따라 <간접적 담화>도 <직접적 담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유형 가운데에서 화자가 완전히 담화를 장악하는 경우는 <일방적-간접적> 담화일 뿐, <쌍방적-직접적> 담화에서는 청자가 수시로 개입하고, <위치의 逆轉> 현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對談이나 聽聞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대답은 수시로 청자가 개입하고, 청문은 청자의 질문에 따라 화제의 범위와 진행 순서가 결정되며 그에서 벗어날 때에는 간섭을 받는다.

아니,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강연 같은 <일방적-간접적> 담화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를 주된 청자로 예측하느냐에 따라 화제의 유형은 물론 그 조직도 달라진다. 따라서 담화는 화자 단독의 산물이라기보다 화자와 청자의 공동 산물이며, 청자는 <共同話者>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담화의 유형에 따라 화자가 그 담화를 장악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일방적-간접적 담화 :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한 강연
- ② 쌍방적-간접적 담화 : 전화 통화
- ③ 쌍방적-반직접적 담화 : 보이는 전화, 화상회의
- ④ 일방적-직접적 담화 : 강의, 연설, 웅변
- ⑤ 쌍방적-직접적 담화 : 대답, 토론

하지만 동일 유형의 담화라 할지라도 화자와 청자가 누구냐라는 <신분>과 <상호 관계>에 따라 다시 화제의 선택은 물론 담화의 구조와 조직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1차적 요인은 <性>·<年齡>·<사회적 身分>이다.

고등학교 화법 과목의 문제점

물론, 신분에 따라 담화가 달라진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비난이 뒤따를 수 있다. 성별이라는 조건에는 '남성우월주의'라는 비난이 뒤따를 수 있고, 연령과 신분이라는 조건에는 '비민주적'이라는 비난이 뒤따를 수 있다. 문학 비평의 '페미니즘(feminism)'이나 '勞動文學'에 대한 논쟁이 그런 비난의 변형된 형태에 속한다.

하지만 그런 비난은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것일 뿐, 일상적 담화는 사회 慣習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관습에서 벗어나면 청자를 설득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 비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자로부터 제지를 받아 담화가 중단된다.

이들이 요소가 담화에 미치는 정도는 ① 성 ② 연령 ③ 사회적 신분의 순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은 화자나 담화 이전에 청자의 심리구조와 사회적 직분에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나 신분보다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연령은 심리 구조와 사회적 직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이라는 공통 인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등급을 차지하고, 신분은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를 거쳐 문화적 민주화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에 따라 나타나는 담화 관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 화자와 청자의 태도 : 남성은 대상으로부터 독립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理性的·能動的으로 대응하고, 여성은 대상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感性的·受動的으로 대응한다.

㉡ 화제의 성격 : 남성은 국가·사회·윤리 같은 公的·抽象的·實用的 화제를 택하고, 여성은 私的·具體的·親交的 화제를 택하는 경향이 짙다.

㉢ 화제의 구성 : 남성은 화제를 논리적 인과성에 의해 遠心的으로 구성하지만 주된 화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이탈의 범위가 크고, 그 범위가 크고, 여성은 화제를 정서적 連接에 의해 求心的으로 구성하지만 주된 화제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이탈의 범위가 좁다.

㉣ 어휘와 음성 조직 : 남성은 기능적이고 소박하며 거칠고 큰 느낌을 주는 어휘와 음성으로 조직하고, 여성은 장식적이고 섬세하며 세련되고 작은 느낌을 주는

4) 필자, 앞의 책, pp.116~123.

어휘와 음성으로 조직한다.

따라서 화자는 담화 전략을 세울 때 먼저 자신과 청자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를 따져본 후에 선택된 화제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조와 조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차적 변수를 화자와 청자의 <勢力>과 <親密度>일 것이다. 물론 일반적 화제일 경우에 세력은 성·연령·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여성보다는 남성, 어린이보다는 성인, 하위신분보다는 상위신분이 우위에 서게 된다.

그리고 부차적인 요인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수>와 <출신 지역>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 <소수>보다는 <다수>, <지방>보다는 <대도시> 출신, <외지인>보다는 <현지인>이 우위에 선다. 그리고 소수인 경우에도 여론의 지지를 받거나 배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경우에는 <우위>에 설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양해를 구하는 화제에서는 <결정권을 지닌 자>가 우위에 선다. 그리고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화제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 이해 관계나 정서가 엇갈리는 화제는 <다수 쪽>이 우위에 선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사안의 특수성 여부가 우선이고, 성·연령·신분이 그 다음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자와 청자의 친밀도는 <親密>과 <疏遠>으로 나눌 수 있다. 친밀한 사이에서는 화제의 제한 범위가 해소된다. 그리고 담화 구성에서도 반드시 첫머리와 마지막에 덧붙이는 <예의적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청자가 기피하는 화제는 화자의 진의를 밝혀야하고 <담화의 장>을 선택하는 데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자-청자>의 관계는 담화의 예절 문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화자/청자-화제의 성질>은 담화의 전개 전략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화자와 청자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화제의 속성도 연속된 개념으로 보되, 실제 교육에서는 <능동(+): 중립(0): 수동(-)> 또는 <긍정(+): 유보(0): 부정(-)>3단계로 나누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화제의 구성과 표현

의미적 국면에 대한 계획이 끝나면 담화의 전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논 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제의 유형과 그를 이루는 작은 에피소드들을 유형화할 필 요가 있다.

화제의 유형은 내용에 따라 <公인 화제>와 <私인 화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화제>와 <기피하는 화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화제는 화자에 의하여 선택된다. 그리고 화자가 어떤 화 제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화 제의 유형은 화자의 志向性에 따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야콥슨(R. Jakobson)은 지향성의 유형을 크게 ① 화자 자신의 관념이나 정서를 표현하려는 <화자 지향형>, ②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려는 <청자 지향형>,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는 ③ <화제 지향형>으로 나누고 있다.⁵⁾ 이와 같은 유형은 그가 다른 글에서 논의한 '언어의 6가지 기능'과 다시 연결할 경우, <정서적 (emotive) 기능>과 <시적(poetic) 기능>은 <화자 지향형>에, <능동적(coactive)> 기능은 <청자 지향형>에, <지시적(referential)> · <주해적(metalingual)> 기능은 <화제 지향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⁶⁾

다만 어느 지향성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기능은 <친교적(phatic) 기능>이다. 의 례화된 修人事, 화자의 흥을 돋구기 위해 던지는 맞장구, 담화의 연장과 중단 및 回路를 점검하기 위한 친교적 담화는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고, 청자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수도 있으며, 또한 화제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를 <복합 지향형> 또는 <상호 지향형>으로 설정할 경우, 지향성은 모두 4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에피소드 유형은 담화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必需的 단위>와 생략해도 무방한

5) R. Jakobson, Closing Statements ; Linguistics and Poetics, T. A. Sebeok ed., *Style in Language*, (The M. I. T. Press, 1960), pp.353~357.)

6) R. Jakobson 같은 책, pp.216~222.

<附隨的 단위>로 나눌 수 있다. 다시 필수적 단위는 화자의 의도(intention)를 나타내는 <主題 단위>,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論據 단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부수적 단위는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轉換 단위>, 청자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한 <禮儀 단위>,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한 <興味 단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화의 구성 단계로 접어들면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른다. 하나는 에피소드를 어떤 <順序>로 배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배열된 에피소드들의 <關係>의 문제이다.

일상적 담화의 에피소드의 배열 순서는 문학적 담화보다 훨씬 고정적이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① 화자와 청자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고 담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의적 단위>, ② 화자의 담화 의도를 밝히는 <주제 단위>, ③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논거 단위>, ④ 담화의 종료를 나타내고 청자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예의적 단위>로 끝을 맺는 점이라던가, 주제와 논거의 전개 순서를 <因果>·<空間>·<時間>의 이동에 따르는 점으로 미루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에피소드들의 <관계>로 접어들면 한결 복잡해진다. 이 단계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論理性과 客觀性이다. 그리고 선택한 화제의 지향성을 유의해야 한다. 논리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면 청자로부터 反論이 제기될 수 있고, 선택한 화제의 지향성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해도 논리적 조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 뒤 에피소드를 인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주장하고 싶은 논지(A')로만 조직하지 말고, 자기 주장에 가까운 논리(A)와 그에 반대되는 논리(B)를 조직하여 청자로 하여금 비교할 기회를 주고, 두 장점을 포괄하여 결론(A': 자기가 이야기하려던 논지)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담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논리에 따라 추론하고, 이야기를 진행할 때는 계획 단계에서 얻은 결론을 유보하고 청자와 함께 추론하는 형식을 택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물론 이와 같이 세속적인 견해를 종합하면 자기 주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창의적인 담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세속적 견해 가운데 몇 가지를

고등학교 회법 과목의 문제점

선택하여 자기 나름대로 조절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담화의 독창성이나 개성 여부는 얼마나 많은 견해를 포괄하고, 그것을 어떤 比率로 수정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의 논리를 포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㉑ $A \rightarrow B \rightarrow A' (A+B)$

※ <A의 장점> → <A의 단점> → <B의 장점> → <B의 단점> → <자기 주장(A와B의 장점)>

㉒ $B \rightarrow A \rightarrow A' (A+B)$

※ <B의 장점> → <B의 단점> → <A의 장점> → <A의 단점> → <자기 주장(A와B의 장점)>

㉓ $A \rightarrow B \rightarrow ? / B \rightarrow A \rightarrow ?$

※ <A의 장점> → <A의 단점> → <B의 장점> → <B의 단점> → <결론은 청자에게 맡김>

※ <B의 장점> → <B의 단점> → <A의 장점> → <A의 단점> → <결론은 청자에게 맡김>

㉑는 <A>에서 출발하여 그와 유사한 <A'>로 회귀하기 때문에 首尾相關이나 漸層의 구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기 때문에 결론이 강화되고 설득력이 높아진다. 청중의 확실한 반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웅변이나 연설에서 채택할 경우 효과가 커진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먼저 거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 주장을 뒤로 미룬 ㉑는 청자로 하여금 결론을 예측할 수 없도록 伏線을 간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논리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차분하게 설득하는 장점을 지니 유형으로서 반전의 효과가 크다.

㉓는 청자에게 결론을 맡기는 형식이지만, 화자의 견해를 전혀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거론의 <순서>와 <頻度>, 진술의 <量>에 따라 화자의 의도가 암시적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유형은 화자의 담화 욕구가 억제되는 것이 단점이지만, 화자가 유도하는 대로 청자 스스로 결론을 내릴 경우 어느 유형보다도 확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청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화제에 적합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청자에게 확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화제의 지향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를 위해 지향성에 따른 화제의 특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화자 지향형 : 화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멀 경우, 청자는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하고 지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가급적 객관적인 자세에서 간결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자 지향형 :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요구일 때는 반발하며, 요구 사항이 모호하거나 어조가 미약할 때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요구 사항을 명백히 하고, 도덕성·객관성·실리성을 확보해야 하며, 강화된 어조로 이야기해야 한다.

㉢ 화제 지향형 : 화제의 내용이 청자와 관계없거나 신빙성과 체계성이 모자랄 때는 거부하거나 지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가급적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청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군데군데 흥미소를 삽입해야 한다.

㉣ 상호 지향형 :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에는 이야기의 흐름이 차단되고, 반감을 살 수 있다. 同調的 반응을 보이고 싶을 때는 도중에 짧게, 이의를 표하고 싶을 때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화제와 연관된 반응을 보여야 하고,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

담화의 준비 과정에서 또 하나 빠뜨리지 않아야 할 사항은 발언이 끝난 다음 청자의 질문이나 이의에 대한 준비이다. 주제가 제한된 경우에는 선택한 화제의 범위 안에서 준비하고, 주제의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화자 자신과 청자의 <신분>·<세력>·<친밀도>와 담화의 장에 형성될 <상황>을 따져보며 준비해야 한다.

4. 담화의 場

담화는 그것이 진행되는 場의 상황(situation)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만한 담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장에 형성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담화의 장은 크게 <物理的 場>과 <狀況的 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물리적 장은 다시 <時間的 場>과 <空間的 場>으로, 상황적 장은 <人的>·<社會的>·<文化的>·<歷史的>·<周邊的> 상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전자는 <中立的>·<固定的> 성격을 띠고, <可變的>·<人格的>인 성격을 띤다.⁷⁾

고등학교 화법 교육의 문제점

하지만 물리적 장과 상황적 장은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 장도 화자의 정서와 욕망을 자제시키거나 조장하는 역할을 하면 상황으로 바뀌고, 상황적 장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물리적 장으로 바뀐다.

물리적 장으로서 시간은 크게 <일년 週期>, <하루 주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년 주기는 다시 <계절>과 특정한 <기념일>로 나눌 수 있다.

계절은 화제의 성격과 일치할 경우에만 상승 작용을 일으킬 뿐, 일상적 담화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같은 계절 안에서는 변화의 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축적되어온 그에 대한 은유적 의미가 무의식 속에서 묻혀 있다가 화제와 계절의 의미가 일치할 경우에만 표출되어 담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⁸⁾

기념일은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날>, <경사스러운 날>, <부정적인 날>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화제의 유형과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화제와 기념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날(정월 초하루) : 부정적인 화제보다는 청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화제를 선택한다.

㉕ 경사스러운 날(결혼기념일, 생일, 창립기념일) : 축하하는 뜻을 주된 화제로 삼고, 부정적인 화제는 생략하거나 암시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㉖ 부정적인 날(제삿날, 패배를 기념하는 날) : 세속적 본능적인 화제를 피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념일에 그날의 의미와 다른 화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예외적 단위>에서 그날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다른 화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하루의 주기는 크게 <빛의 시간(낮)>과 <어둠의 시간(밤)>으로 나눌 수 있다. 프라이(N. Frye)의 설명에 의하면, 빛의 시간은 <理性>이, 어둠의 시간에는 <感

7) 필자, 앞의 책, pp.167~168 참조

8)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은 감성성이 강화되고, 여름과 겨울은 이성이 강화되는 계절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로는 봄은 순진·화려·화사한 정서를, 여름은 성장·노동·정열을, 가을은 성숙·고뇌·사색을, 겨울은 정지·좌절·절망·엄숙 같은 정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性>이 강화된다고 한다.⁹⁾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정서가 변하는 것은 빛과 어둠의 교차에 따라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촉발되는 정서가 인류의 集團無意識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프라이의 해석에 하루의 생활 패턴을 참작하면, 빛의 시간은 <노동의 시간>이나 <公的 활동의 시간>, 어둠의 시간은 <휴식의 시간>이나 <私的 활동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 인간의 정서는 <이성의 극대화(대낮)→이성의 약화(황혼)→감성화(밤)→감성의 극대화(새벽)→이성화(아침)>로 변한다고 볼 수 있다.¹⁰⁾

이에 따라 각 時間帶에 유리한 화제와 담화를 진행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㉑ 오전의 시간 : 이성이 지배하는 시간. 업무가 시작됨. 누구나 분주하므로 가급적 청자 지향형의 화제는 피하고, 화제 지향형을 선택하고 되도록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㉒ 오후의 시간 : 이성과 감성이 교차되기 시작함. 업무가 계속되고, 심신이 지치기 시작한다. 오후의 시간이 흐를수록 화제의 제한 폭이 없어지므로 바쁘지 않을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토론도 가능하다.

㉓ 초저녁의 시간 : 감성이 지배하고, 개인 생활과 휴식이 시작되는 시간. 화제 지향형보다는 긍정적 방향의 청자 지향형과 화자 지향형의 화제가 적합하다. 심신이 지쳐 있으므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담화에는 에너지를 보충할 식사나 음료를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㉔ 깊은 밤의 시간 : 가장 감성적인 시간. 자기의 처소가 아닐 경우에는 초조해 지므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청자가 담화를 거부하기 쉽다. 다급한 일이 아니면 담화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물리적 장을 이루는 또 하나의 요소인 공간은 開閉 상태에 따라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닫힌 공간>은 그 모습이 특별히 거칠지 않는 한

9) N. Frye, *Anatomy of Criticism*(New Jersey : Princeton Univ., 1973), p.16.

10) 필자, 『소월시 연구』(태학사, 1992) 제Ⅲ장 시공의 상황과 어조 관계 중 '시간에 따른 정서의 변화' 참조.

고등학교 화법 교육의 문제점

청자의 신경이 주변에 빠앗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화제라도 상관없다. 특히 청자의 주의 집중이 요구되는 화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담화의 형식이 개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반대로 <열린 공간>에서는 주변 상황에 화자나 청자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담화를 나누기에는 적합한 공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지켜보므로 상호 형식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

물리적 장은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와 <세력>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장의 모습이나 구조가 특수할 경우에는 세력상으로 우위에 선 사람은 더욱 유리하고, 수세인 사람은 더욱 불리해진다. 국제적 회담이나 주요 商去來에서 회합의 장소와 시간에 신경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루 주기 가운데 수세에 몰린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간적 요소는 <경계의 시간>과 <긋은 날씨>이다. 경계의 시간에서 특히 유의할 시간은 출근 직전과 퇴근 무렵, 그리고 자정 전후의 심야의 시간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모두가 쫓기는 심정이라서 근본적으로 담화를 기피하고 싶어하며, 자정 전후의 시간에는 주변에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수세에 처한 사람은 공포감을 느끼기 쉽다.

긋은 날씨는 <비오는 날>, <눈오는 날>, <바람부는 날>, <추운 날>, <더운 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일광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밤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더운 날, 추운 날, 바람 부는 날은 신체적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집중을 요구하는 화제를 꺼리게 된다.

공간은 구조와 상관없이 다시 <거친 공간>과 <부드러운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친숙하고 대등한 사람끼리는 구조와 모습보다는 주변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도 상관이 없고, 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반면에 守勢에 몰린 사람은 <폐쇄적-거친 공간>에서는 공포를 느끼어 방어적이 고도 공식적인 반응만 보이기 쉽다. 그리고 개방된 공간에서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격적 태도를 취하거나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다.

5. 맺는 말

우리는 이제까지 담화를 발생 시스템, 화제의 구성, 담화의 장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해 왔다. 따라서 어떤 어휘와 문장을 선택하고, 어떤 語調로 말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發音, 抑揚, 非言語的 표현인 몸짓과 표정, 服裝과 같은 표현 전략의 문제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아나운서나 전문 연설가가 아니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모든 담화는 화자답게 말하고, 각 국면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론하면 그 방법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적 표현보다 내용과 예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법 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거의 다 논의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면, 담화는 이론보다 실제, 기술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화법 교육의 목적은 담화 이론이나 뛰어난 화술가를 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담화를 통하여 자아의 인격을 완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법』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말하기와 인격> 또는 <말하기와 사유의 관계> 등을 더 추가해야 할 것이다.